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

# 출산 · 입양 시

## 연 200만 원 추가로 소득 공제

해마다 연말이 되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 정산 관련 규정은 매년 약간의 개정 사항이 생긴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 정산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글 이호(회인경영회계법인 회계사) 사진 (NOBLE ASSET)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기금 씨는 신용 카드사 등에서 날아드는 각종 연말 정산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긴다. 1년 내내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왔지만 연말에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아까운 연말 정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말 정산 제도는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미리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중학생 아들이 있는 이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 교육비에 대한 공제 폭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근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졌지만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된다는 뉴스를 보고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 급식비 · 교과서 대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 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 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연장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 공제 영수증은 올 1월 말(2월 초)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정된 사항 중 학부모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중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의 공납금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 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기존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본인이 기부한 금액뿐 아니라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교 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현행처럼 10%로 유지된다.

### 종합소득세 세 부담 크게 줄어

이번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변경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다만, 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급여액의 20%와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다.

주택 마련 저축의 소득 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소득 공제 요건은 무주택자거나 국민 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고, 당해 연도 중 2주택 보유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과표 구간이 조정돼 세 부담이 경감된다. 8%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10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17%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은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로, 26% 세율 적용 구간은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에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 공제해준다.

### 육아 휴직 급여 비과세

또한, 근로자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준비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지원 하는 한편,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및 입양 시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출생 또는 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해준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육아 휴직 급여와 산전·산후 휴가 급여, 출산 보육 수당 10만 원은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2008년에 자녀를 출산했지만 아직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 공제 100만 원,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 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울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 이번부터 장애인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 장기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매년 조금씩 개정돼 연말 정산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지지만, 해당 사항을 잘 챙겨 연말 정산 혜택과 권리를 제대로 누리보자. ☺